

이상한 열매

최지인 시인

그 애 사촌이 자꾸 시비를 걸었다. 그 애가 울음을 터트렸다. 그 애 남자친구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 그만, 그만 하세요. 그 애 사촌과 나는 비상계단 바닥에 뒹눴다. 입술이 터졌고 셔츠 단추가 뜯겼다.

맨 처음 그 애는 내가 좋다며 울었지. 나는 예배 중에 나와 전화기를 붙잡고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았다. 영원에 관한 이야기들. 어느새 현금함이 예배당을 돌고 있었다.

골목 귀퉁이에 숨어 담배를 태웠지. 길고양이가 다리 사이를 오가며 뺨과 이마를 비볐다. 꽃과 초콜릿을 사 왔어. 그 애가 비틀거리며 번화가를 걸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랑 같은 건 몰랐을 때였다.

중개인이 손님을 데리고 집에 왔다. 이제 떠나야 했다. 너는 몇 번이나 몸을 씻었다. 네가 씻는 동안 나는 식탁에 앉아 식은 피자를 먹었다. 다음 날 짐을 챙겨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네가 빌려 간 잠바는 결국 받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다 타버린 생각들을 뒤적였다. 짝사랑하던 선배의 애인은 영화감독이었다. 선배는 시사회 사진을 보여주며 손끝으로 그를 가리켰다. 열차가 강을 건넜다. 나랑 사귄래? 위험한 것에 맞서는 부르튼 입술들.

뒷주머니에 넣은 머리핀 장식이 깨졌다. 편지를 몇 통 받았지만 이사하면서 버렸다.

왜 너는 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거지?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춘다. 배낭에서 쏟아진 책과 잡동사니. 몸에서 벗어나려는 마음. 바위의 얼굴. 그리고 남겨진 것.

나를 미워하고 있을 때도 미래는 계속 생겨났다.

• **최지인**: 2013년 『세계의 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제10회 조영관 문학창작기금을 수혜하고 제40회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 『나는 벽에 붙어 잤다』 『일하고 일하고 사랑을 하고』 『당신의 죄는 내가 아닙니까』, 동인 시집 『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를 펴냈다. 창작동인 ‘뽕’과 창작집단 ‘unlook’에서 활동 중이다.